

夢診의 원리에 대한 연구

강동윤 · 김병수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Principle of Diagnosis for the Oneironosus

Dong Yun Kang, Byung So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dream is a well-known experience in the routine lif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ream to modality of diagnosis because many evidences that the dream represents the physiologic and pathologic changes in the human have been proved in recent days. The oneironosus(病夢) was caused by three factors, which are the external stresses of the body, malfunction of Jang-Bu(臟腑) and irregularity of Yin-Yang(陰陽) and Gi-blood(氣血). The oneironosus(病夢) reflects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progression and prognosis of the disease. In addition, it predicts the development of disease. The principle of treatment for the oneironosus(病夢) is making an effort for the stabilization of mind by eradica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make the spirit(神) been unstable.

Key words : dream, oneironosus(病夢), spirit(神), five spirit(五神)

서론

꿈을 꾸는 것은 신체 내부의 어떤 부분에 생긴 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병은 각각 다른 꿈을 꾸게 한다. 이런 까닭으로, 감기가 들어서 누워 있으면 무서운 꿈을 꾸고, 어떤 무서운 것을 생각하거나 그 모습이 떠오르거나 한다. 그리고 생시에는, 분노는 신체의 어떤 부분에 열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같은 부분이 너무 뜨거우면 잠들었을 때에는 분노를 날게 하고, 뇌 속에는 적에 대한 상상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생시에 자연스러운 호의는 희망을 일으키고, 희망은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에 열을 일으킨다. 요약하면 꿈은 생시의 상상을 뒤집은 것이다. 생시에 어떤 한끝에서 시작된 운동은 꿈을 꿀 때 다른 한끝에 도달한다 하여 병은 꿈에 반영된다¹⁾.

이와 같이 夢診은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람의 심리상태와 꿈을 꾸는 연유에 대해 분석하여 인체내부의 病變을 인식하는 일종의 진단 방법이다. 夢診의 대상이 되는 꿈을 특별히 '病夢'이라고 하는데, 病夢이라는 명칭은 後漢末期 王符가 만들어냈다. 그는 "陽이 병들면 차가운 꿈을 꾸고, 陰이 병들면 뜨거운 꿈을 꾸게 되며, 속의 병은 어지러운 꿈을 꾸고, 바깥의 병은 생겨나는 꿈을 꾸게 되며, 온갖 병의 꿈은 혹은 흩어지기도 하고 혹은

은 모이기도 하는 꿈을 꾸다. 이러한 것을 病夢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비록 그의 논술이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의학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醫家 중에서는 隋代 楊上善이 『黃帝內經太素』 중에서 『內經』에서 여러 가지 꿈을 논한 것을 주해하면서 "그 병든 바로 인하여 그것이 꿈에 보이는데, 이것이 '病夢'이다. 이 열한가지 꿈은 모두 病夢이다. 아울러 陰陽의 盛衰, 안으로 배고픔이나 배부름이 있는 경우, 肝肺의 氣가 심한 경우, 長短의 벌레가 많은 경우로 인하여 꿈이 된다. 이것은 손상으로 인하여 꿈을 꾸기에 이른 것이니 바로 꿈으로 진단하는 것(夢診)이다."라고 하여 '病夢'과 '夢診'의 개념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꿈을 통한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夢診의 개념과, 꿈과 五神과의 상관성, 내·외부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를 발표한다.

본론

1. 夢診의 원리

1) 꿈을 꾸기 위한 선결조건

- 1) Erich Fromm, The Forgotten Language, 한상범 譯, 꿈의 精神分析, 장음사, pp. 158-159.
- 2) "因其所病, 見之於夢, 此爲病夢也. 此十一種夢皆病夢也, 病因陰陽氣之盛衰, 內有飢飽, 肝肺氣盛, 長短虫多, 以爲夢也. 此所以因傷致夢, 卽以夢爲診也."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3-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7/22 · 수정 : 2005/08/23 · 채택 : 2005/09/20

甲骨文에서 나타난 夢자를 보면, 字形의 뜻은 사람이 침상에 서 손으로 눈을 가리키며 잠을 자는 것으로, 수면 중에 눈에 보이는 바가 있음을 나타낸다. 『莊子』에서의 “잠을 자는 것은 영혼이 교유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荀子』에서 말한 “마음이 잠들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한 것도, 실제로 모두 사람이 수면 중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墨經』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지각이 있으나 지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한 이후로, 바로 이에 덧붙여서 꿈에 대해 일종의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꿈의 특징에 대해서 慧影은 『智論疏』에서 “대저 꿈의 법도를 논하자면, 잠을 할 때에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꿈도 꾸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잠을 자는 중에 꿈에서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 고향을 질렀다고 한다면, 깨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따름이다.”라고 하여 꿈과 수면의 불가분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한의학에서는 꿈이 수면 중 神魂이 변화하는 표현의 일종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면과 각성이 교대로 발생하는 것은 음양이 교착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즉, 수면은 인체의 陰氣와 陽氣가 消長盛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靈樞·口問』⁴⁾에 “衛氣晝日行於陽，夜半則行於陰，陰者主夜，夜者臥，陽者主上，陰者主下，故陰氣積于下，陽氣未盡，陽引而上，陰引而下，陰陽相引，故數欠。陽氣盡，陰氣盛，則目瞑，陰氣盡而陽氣盛，則寤矣。”라 하여, 꿈은 陽이 다하고 陰이 성하는 시간에 발생하는데 다만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靜中之動, 陰中之陽에 속하였으며, 아울러 陰陽의 밖에서 독립한 상태이다. 따라서 꿈을 꾸는 것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일종의 현상에 속한다⁵⁾.

2) 꿈을 꾸는 원인

『素問·宣明五氣』⁶⁾에 “五臟所藏，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腎藏志.”라고 하여 다섯 가지 정신을 ‘五神’이라고 하고, 五神은 五臟 속에 각각 나누어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臟象의 五神은 解夢의 기초적인 이론이다. 臟象의 五神으로써 夢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점이 五神의 변화가 꿈을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에 있다⁷⁾.

王昭禹는 『周禮詳解』에서 “꿈은 정신의 움직임이다.”라고 하였고, 呂祖謙은 『呂氏讀書記』에서 “사람의 정신은 천지의 음양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의해 각기 물류에 이르게 된다.”라 하였으며, 朱熹는 『詩集傳』에서 “사람의 정신은 천지의 음양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한 행위와 밤에 꾸는 꿈의 선악과 길흉은 각기 물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였으니⁸⁾, 모두 꿈이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에서 연유한다고 인식하였다.

(1) 心藏神

神은 물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명현상활동

의 精華이며, 神이 생명의 존재標識의 의미로도 쓰인다. 또한 神은 육체적으로는 생명활동을 추진하는 心臟活動이고, 정신적으로는 생명을 영위하려는 본능적 生의 慾望을 의미하고, 神의 활동에 의해 感覺과 知覺의 과정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정신 활동이 비롯된다. 이를 두고 李梴은 『醫學入門』¹⁰⁾에서 “…神明之心，神者，氣血所化生之本也，萬物由之盛長.”이라고 하였고, 『靈樞·天年』¹¹⁾에 “失神者死，得神者生也”라고 하였다. 心神은 나머지 네 臟속에 潛藏되어 있는 나머지 네 神에 대해 통괄하고 협조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張介賓은 『類經·夢寐』에서 “五行의 조화는 본래 무궁하지만 꿈은 心에서 만들어지니 그 근원은 하나이다. 대개 心은 군주의 관이며 神의 집이다. 神이 心에서 動하면 五臟의 神이 모두 그것에 응한다.”라 하였고, 또, 『類經·祝由』에서 “오직 질병만이 아니라 꿈자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는 이른바 志에는 싫어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 神氣가 失守하면 그것으로 인해 邪氣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였다. 漢字중에 정지활동과 관련한 것은 ‘心’(心이나 忄 등의 部首를 포함)이나 ‘神’과 유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를 들면, 憤怒·喜悅·思慮·悲哀·憂鬱·恐怖·精神不安 등등이다. 따라서 『列子』 중에서는 “神이 교류하는 바를 꿈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朱熹는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중에 心이 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

(2) 肝藏魂

魂은 陽神으로 神을 따라 왕래하며 후천적인 요인으로 부단한 학습을 통해 발전된 고급의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사유·인식·평가·판단 등이 포함된다. 또 魂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 발동시키는 정신활동이며 정신의 충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¹³⁾.

『靈樞·本神』¹⁴⁾에서는 “隨神往來者，謂之魂 … 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忘不精，不精則不正當，人陰縮而攣筋，兩脅骨不舉，毛悴色夭.”라고 하였으니, 魂은 체내 각 부위의 생리와 병리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또한 체외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동시에 魂은 또한 사람의 근골격계와 운동계를 주관한다. 사람들은 항상 魂의 외부에 대한 감지를 ‘魂이 몸 밖에 유영한다’거나 ‘영혼이 나와서 유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꿈은 대부분 魂의 활동에 귀속된다. 夢遊病에는 신체의 활동이 있으며 사람의 운동 또한 肝·魂과 관계가 많다.

이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魂魄이 날아다니면 사람으로 하여금 잠자리가 불안하고 꿈을 잘 꾸게 한다.”라고 하였고, 李仲樞는 『醫宗必讀·恐』에서 “魂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하면 잠잘 때 가위에 눌린다.”라고 하였다¹⁵⁾.

(3) 肺藏魄

『禮記·祭義』에서는 “耳目이 聰明한 것은 魄이다.”라 하였고, 『類經』에서는 “魄의 쓰임은 動作할 수 있다. 아프고 가려운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낀다.”라고 하였다. 魄은 陰神으로 본능적

3)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p. 240-241, 244, 249.

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158.

5) 柴文學·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22.

6) 劉艷驕·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58.

7)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92.

8) 楊殿興 等, 夢境新探,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 38.

9)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60.

10) 李梴, 精校醫學入門, 翰成社, p. 82.

1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241.

12) 楊殿興 等, 夢境新探,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p. 38-39.

13) 金景先, 韓醫學의 精神과 佛敎 唯識學 中心法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 12-13.

1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68.

15) 楊殿興 等, 夢境新探,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 39.

인 정신활동을 가리키고 사람의 감각 및 감각과 직결된 원초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수족의 운동이나 어릴 때의 감각 등이 포함되고 충동을 적당히 억제하는 정신활동이다. 이는 정신의 억압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魄은 통증이나 가려움 등과 같은 형체의 본능적인 감각기능(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 불수의 운동 등 신체적 본능이다¹⁶⁾.

魄의 이러한 특성이 가능한 것에 대해 『靈樞·口問』에서는 “精과 함께 출입하는 것을 魄이라 한다.”고 하였다. 魄과 꿈의 관계에 대해서는 明대의 철학자 王廷相은 『雅述·下篇』에서 “무엇을 魄의 느낌이라고 하는가? 五臟과 모든 뼈는 모두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가 막고 통하면 하늘에서 노니는 꿈을 꾸게 되고, 살이 썩어서 처지고 탁하면 몸이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된다. 마음이 활달하고 깨끗하면 광막한 들판을 노니는 꿈을 꾸게 되고, 마음이 산란하고 괴로우면 어두운 구멍에서 두려워 몸뚱이를 몰라하는 꿈을 꾸게 된다. 뱀이 나를 어지럽혀 미혹하게 하는 꿈을 꾸는 것은 피를 둘러맨 까닭이며, 우리가 귀를 진동시키는 꿈을 꾸는 것은 북소리가 사람에게 들린 까닭이다. 배가 고프면 취하는 꿈을 꾸고, 배가 부르면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며, 더우면 불을 꿈에서 보게 되고, 추우면 물을 꿈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추론해 보면, 五臟에 魄의 느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여 魄의 느낌에 의해 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¹⁷⁾.

(4) 脾藏意

意는 생각을 가리키고, 또한 일부 기억을 가리키기도 한다. 陳言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脾는 意와 思를 주관한다. 意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思라는 것은 心이 하는 바를 겸한다.”라고 말하였다. 기억과 생각이 모두 꿈과 유관하다. 이에 대해서 王廷相은 “무엇을 思의 느낌이라고 하는가? 道가 至인에 이르지 않으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한 가지 일이 되어 잡자기 전이라면 思가 되고, 잠든 후라면 꿈이 된다. 이것은 꿈이 곧 思이고, 思가 곧 꿈인 것이다. 무릇 이전에 겪었던 것과 낮에 행했던 것이 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습관에 연유한 느낌이 되며, 무릇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과 듣지 못했던 것이 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만연함으로 인한 느낌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추론하면, 사람의 마음에 思의 느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여 思가 꿈으로 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한편, 『靈樞·本神』¹⁹⁾에서는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라고 하였으니, 생각, 기억의 과정과 心·脾의 활동은 밀접하여 불가분하며 心·脾의 공동작용으로 완성된다.

(5) 腎藏志

志는 의지과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총명한 재능과 지혜, 공포의 정서 등이다. 『靈樞·本神』에서는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王冰은 “意는 기억하여서 잊지 않는 것이다. 志는 意를 오로지 하여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志는 항상 神意와 함께 거론된다. 예를 들면 ‘意志가 박약하다’, ‘神志가 강건하다’고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志와 意는 매 한가지이며 또한 심신활동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반드시 心腎相交·水火既濟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각·기억·지혜·감각을 지닐 수 있다. 志는 神·意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꿈과 상관된다²⁰⁾. 方以智의 이해에 따르면, 꿈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속의 지혜활동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며, 사람들이 꿈속에서 헛된 생각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속의 지혜가 자아제어를 상실한 결과물이다²¹⁾.

3) 꿈의 유발 요인

(1) 인체 외부적 요인의 자극

일찍이 『內經』에서는 외부적 요인의 자극이 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外邪가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도 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內經』에서 말한 ‘淫邪’, ‘正邪’는 같은 뜻으로 모두 외부적인 요인을 가리키는 말이다²²⁾. 이른바 正邪라는 것은 風·寒·暑·濕·燥·火 등의 기후요소를 말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六氣’라 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六淫’이라고 한다.

六淫의 맨 처음은 風이다. 風은 百病之始이며 百病之長이다. 風은 陽邪이고 그 성질이 善行而數變한다. 또 風은 主動하여 쉽게 輕揚發泄하므로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姚止庵은 “善行한다는 것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이고, 數變한다는 것은 證이 一端이 아니라는 것이니, 風이 邪氣가 되면 위태로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꿈은 風과 같이 변화가 빠른 특징이 있다. 또한, 風은 꿈을 꾸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病夢의 辨治 중에서는 風이 꿈을 일으키는 작용을 강조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宋·許叔微는 『普濟本事方·肝風肝膽筋骨諸風』에서 “肝經이 본래 허한데 안으로 風邪를 받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누우면 魂이 흩어져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魂이 흩어져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魂이 떠다니게 되고 곧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清·張璐는 다시 『張氏醫通·神志門』에서 “역시 肝이 虛해서 風邪가 침습하는 경우도 있으니 『本事方』에서는 (자려고) 누우면 魂이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면서 악몽을 꾸며 저녁 내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할 때 먼저 獨活湯을 여러 제 쓰고 난 뒤에 珍珠母丸을 썼으니 효과가 기막히다. 대개 肝이 본래 虛한데 虛風이 내부로 침습하면 魂이 정처 없이 노닐게 된다. 肝은 魂을 간직하는 곳으로 風氣나 水飮이 虛한 틈을 타서 肝에 침습하면 이로써 魂이 편안하지 못하고 신체를 이탈한 것처럼 날아다니게 되는데 心血이 虛하면 치료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로운 지경이 되고 만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였다. 당연히 이 경우에 말한 風은 肝血不足으

16) 金景先, 韓醫學의 精神과 佛敎 唯識學 中心法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 12-13.
 17)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59.
 18)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59.
 19)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68.

20) 楊殿興 等, 夢境新探,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p. 39-40.
 21)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270.
 22) 馬蒔는 “淫邪라는 것은 달리 그 邪氣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燥濕·寒暑·風雨의 正邪가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아직 머무를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라고 해석하였다.

로 야기된 內風으로 外風과는 구별이 된다. 內風에 대해서 불교의 저작인 『大智度論』에서는 “만약 몸 속이 조화롭지 못하여 바람의 기운이 많으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이고 검은 것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였다²³⁾. 風이 꿈을 유발한다는 것은 주로 證의 특징으로부터 추리할 수 있다. 한편, 옛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꿈과 자연계의 기후변화인 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王符는 일찍이 『夢例』에서 “큰 바람이 부는 꿈은 사람들을 날아다니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수면 중에 風의 자극을 받으면 꿈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됨을 지적한 것이다. 外風이 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예가 있다. 『太平聖惠方·治虛勞夢與鬼交諸方』에서는 “대저 사람은 五行의 수려한 기운을 稟賦받아서 생겨나고 五臟의 神氣에 편승하여 길러진다. 만약 陰陽이 조화로우면 臟腑가 강성하여 邪氣가 간섭할 수 없다. 만약 장차 調和를 잃어서 血氣가 虛衰하게 되면 風邪가 그 허한 틈을 타고 鬼氣가 正氣에 기대게 된다. 따라서 勞傷한 사람은 臟腑의 기운이 약하고 神氣가 지키기 못하기 때문에 邪氣가 허한 틈을 타서 간섭하게 되고 그로 인해 꿈에서 귀신과 交通하게 된다.”라고 하여 風邪가 夢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古今醫案按·傷風』에는 風으로 인해 夢泄이 되는 경우에 대한 의안 1례가 실려 있다. “張路玉이 懋甫라는 사람의 열 일곱 살 난 둘째 아들을 치료하였는데, 매번 傷風할 때마다 吐血을 하고 夢泄을 하였다. 이는 肝臟에 伏火가 있는 것으로 火가 동하면 風을 불러들인다. 대개 肝은 血을 저장하고, 魂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肝이 저장을 하지 못하면 血이 火를 따라 炎上하고, 魂이 불안하면 精이 꿈을 따라 새어 나온다. 마침내 桂枝湯에 龍骨·牡蠣을 가하여 주었더니 4劑 째에 表가 풀리고 血이 멈추었다. 桂枝湯은 營氣를 조화롭게 하고 邪氣를 흠어 버리는 것을 주로 하며 龍骨·牡蠣을 가하여 肝을 진정시키고 魂을 안정시켰다. 封藏이 견고하면 風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魂夢이 안정되면 精이 제멋대로 동하지 못한다.”고 한 예이다. 이 醫案에서 夢泄의 발생은 다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傷風 또한 명백한 요소이므로 소홀히 보서는 안 된다.

총괄하면, 內風과 外風이 모두 꿈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혼합된 상태에서 內風과 外風이 함께 작용하여 꿈의 발생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莫枚士는 『研經言』에서 “꿈이 風에서 기인하여 夢精을 하는 것은 虛한데 風이 곁집 것이므로 仲景은 桂枝湯 중에 龍骨, 牡蠣을 넣어서 치료하였다. 桂枝湯은 中風方이다.”라고 말하였다²⁴⁾²⁵⁾.

寒邪의 꿈 역시 상견된다. 寒은 陰邪이고 사람의 陽氣를 쉽게 상한다. 그 성질은 凝結阻滯하여 氣血을 凝滯시킨다. 기운이 비교적 낮은 겨울철이나 갑작스런 기온의 하강에 난방을 소홀히 하면 쉽게 寒邪를 받게 되고 혹은 한랭의 자극을 받아서 꿈이 발생하고 수면에 영향을 준다. 寒에는 內寒과 外寒의 구분이 있다. 外寒은 寒邪가 외부에서 침입한 寒邪 즉, 한랭한 기후의 자극을 가리키고, 內寒은 陽氣의 부족으로 신체를 제대로 溫煦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外寒이 인체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解散되지 않으면 역시 陽氣를 상하여 內寒을 만들 수 있고, 본래 陽氣가 虛衰하여 衛陽이 제 기능을 못하면 外寒을 쉽게 받는다. 둘은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연계하여 모두가 꿈을 유발할 수 있다. 外寒이 꿈을 유발하는 것은 생활의 적잖은 체험사례가 있다. 송나라 때의 袁文은 『龜鰲閑評』에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느 날 밤 그는 홀연히 꿈속에서 자신의 상반신이 물에 빠져 있고, 하반신은 또 흙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았다. 깨어난 후 자세히 생각하니, 원래 간밤의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그는 이불을 상반신에서 하반신으로 차 버린 것이었다. 상반신은 물에 빠져 있고, 하반신은 이불이 위에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흙 속에 매몰되어 있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²⁶⁾. 이런 식으로 外寒으로 인해 꿈을 꾸게 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 王符는 『夢列』에서 “큰 추위가 닥친 꿈은 사람들을 원망스럽고 슬프게 한다.”라고 하였고, 李鐘倫은 『周禮彙訓』에서 “喜夢과 懼夢이라는 것은 대개 즐거움이 있으면 곧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두렵다는 것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이 이쪽에 있으면 두려움은 저쪽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 추우면 옷을 입는 꿈을 꾸는 것은 즐거움이며 … 추운데도 얼어 버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하였다²⁷⁾²⁸⁾²⁹⁾.

內寒이 꿈을 일으키는 경우는 『靈樞·淫邪發夢』에 설명되어 있다. 『大智度論』에서는 “만약 몸 속이 조화롭지 못하여 차가운 기운이 많으면 꿈에서 물이 보이고 흰 것이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³⁰⁾. 역대의 의학자들도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千金要方』에서는 『扁鵲』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肝이) 虛하면 寒하고 寒하면 陰氣가 壯하며 (陰氣가) 壯하면 산이나 나무 등의 꿈을 꾸다.”고 하였다. 唐代의 段成式은 『酉陽雜俎』 중에서 蜀醫 咎殷의 말을 인용하여 “臟에 陰氣가 많으면 꿈을 많이 꾸다.”라고 하였다. 또, 『普濟方』에서는 心이 虛寒할 때 꿈에서 산·구름·평지·못 등의 꿈을 꾸기도 한다고 하였다³¹⁾.

暑는 陽邪이다. 그性は 升散炎熱하며 傷津耗氣하기 쉽고 濕邪와 겹하기 쉽다. 만약 暑熱의 氣에 感하면 口乾·面赤·煩躁·不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꿈에서 불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內經』에서 “陽이 盛하면 큰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다.”라고 한 것이다. 火는 熱이 極한 것이며 暑와 火는 모두 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熱은 꿈의 상견 원인이다.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그 꿈속에서 喜·怒·哀·樂·好·惡·愛의 七情이 지나침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은 잠이 들면 內熱이 鬱滯됨이 심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暑는 보통 濕을 겸하는데 暑濕에 感하면 무기력해지고 눕기를 좋아하며 꿈을 많이 꾸게 된다³²⁾³³⁾.

濕은 본래 重濁한 有形의 邪氣로 그 성질이 粘滯하다. 처음

23)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10.
24)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39-40.
25) 劉艷驕·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2.

26)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08.
27)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38.
28)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40-41.
29) 劉艷驕·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2.
30)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10.
31)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41.
32)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42.
33) 劉艷驕·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3.

일어나면 陽氣를 상하기 쉽고 氣機를 阻滯하고 清竅를 蒙蔽시켜, 精神不爽·嗜臥多眠·睡眠障礙·多夢 등의 증상을 유발시킨다. 濕에도 內外의 구분이 있다. 外濕은 습한 곳에 살거나 물을 건너거나 비나 이슬에 옷이 젖거나 하여 濕을 외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內濕은 차나 술을 즐겨 마시거나 과일·채소 등을 많이 먹거나, 혹은 脾胃가 허약하여 水濕이 제대로 運化되지 못한 경우에 濕이 내부에서 생긴 것이다³⁴⁾³⁵⁾.

『內經』에는 濕과 꿈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꿈의 선결조건인 잠과 濕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있다. 『靈樞·大惑論』³⁶⁾에 말하기를 “黃帝曰 人之多臥者, 何氣使然? 岐伯曰 此人腸胃大而皮膚濕, 而分肉不解焉. 腸胃大則衛氣留久, 皮膚濕則分肉不解, 其行遲. 夫衛氣者, 晝日常行於陽, 夜行於陰, 故陽氣盡則臥, 陰氣盡則寤. 故腸胃大, 則衛氣行留久, 皮膚濕, 分肉不解, 則行遲, 留於陰也久, 其氣不滿, 則欲眠, 故多臥矣.”라고 하였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보통 꿈을 많이 꾸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다. 淸代의 石壽棠은 濕과 꿈의 관계에 대하여 『醫原』에서 “濕은 地氣에 속하며 地氣는 濁邪가 되는데 濁邪는 사람의 神志를 가장 잘 혼미하게 하니 종종 濕病의 초기에 곧 사람의 神氣를 이상하게 하여 혼미하고 煩躁하고 고통스러운 바를 모르게 한다. 간혹 정신이 맑아 스스로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꿈이나 잠자리는 역시 대부분 불안하여 눈을 감으면 곧 보이는 바가 있다.”라고 하여 濕邪도 꿈을 꾸게 하는 상견 요인이라고 하였다³⁷⁾³⁸⁾.

燥는 가을의 主氣이며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燥邪에 傷하면 心包로 內陷하여 꿈을 많이 꾸게 될 수가 있다. 石壽棠은 “燥邪가 心包로 들어가면 神이 번거롭고 意가 어지러워지는데 (병세가) 가벼우면 말을 많이 하고, (병세가) 무거우면 헛소리를 하며, 극도로 폐색되면 신명이 혼란스럽고 쉬지 않고 잠꼬대를 하며 눈동자가 빈번히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邪氣가 心包로 들어가서 생긴 多夢이나 잠꼬대는 항상 두려운 꿈으로, 죽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염두에 두던 사람을 보기도 한다³⁹⁾.

한편, 張介賓은 “正邪라는 것은 正風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무릇 외부에서 陰陽勞逸에 감촉되면 내부에서 聲色嗜欲이 움직이는데 단지 사람의 마음에 간섭함이 있으면 모두 正邪라 이르며 또한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⁴⁰⁾.”라고 하였으니, 正邪는 인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자극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단 六淫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후의 자극·소리·색채 등의 청각, 시각적 자극, 의복류, 침구류의 자극 및 기타 물질들의 피부에 대한 자극 등이 모두 正邪의 범주에 들어가며 다양한 꿈을 일으킬 수 있다.

(2) 인체 내부적 요인의 자극

외부적 요인의 자극 외에 내부적인 요인의 작용과 조절이

꿈의 관건이 된다. 만약 신체 내부의 환경이 잘 조화되면 외부적인 요인이 자극이 되지 못하고 비록 자극이 되더라도 병적인 꿈을 꾸게 하지는 못한다. 바로 “正氣가 내부에 있으면 邪氣가 침범할 수 없다.”, “邪氣가 모인 곳은 그 氣가 반드시 虛하다.”는 것이다. 인체 내부의 환경은 臟腑의 생리활동, 臟腑氣血陰陽의 실조 및 瘀血, 痰飲, 寄生蟲과 같은 병리적 산물의 자극 등의 요인을 포괄한다.

① 臟腑生理活動의 영향

꿈은 五臟에 소속된 五神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五臟의 생리기능이 조화되어 각종 심리활동이 정상이 되어야 사람의 정신·생각·감정·의지 등이 비로소 건강하게 된다. 따라서 臟腑의 어떤 생리활동은 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脾胃는 倉廩之官으로 水穀을 受納·腐熟하고, 水穀의 精微를 運化하는 등의 생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 『內經』과 『列子』에는 이미 “배가 몹시 부르르면 나누어주는 꿈을 꾸고, 배가 몹시 고프면 취하는 꿈을 꾸다.”라는 기재가 있다. 『諸病源候論』에서도 역시 “몹시 배가 부르르면 꿈에 나타나고 몹시 배가 고프면 꿈에 누워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膀胱의 자극이 꿈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바이다. 방광에 오줌이 가득하면 화장실을 찾아 해매거나 오줌을 누는 꿈을 꾸게 된다⁴¹⁾⁴²⁾.

② 臟腑陰陽氣血의 실조

陰陽의 偏盛偏衰, 臟腑의 虛實, 및 血虛, 血瘀 등은 病夢의 상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陰陽은 서로 협조하며 평형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인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른바 “陰平陽秘, 精神乃治”이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陰陽이 실조되면 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꿈을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夢境과 病情이 그 표현상 유사성을 가진다. 陰陽, 臟腑의 정화와 꿈의 연계성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³⁾.

표 2. 陰陽에 따른 夢象

分類	전형적인 夢象	夢象의 특징	兼症
陽	陽盛則夢大火燔灼, 上盛則夢飛	火熱, 亢盛, 興奮, 激動, 色澤鮮明, 有餘, 向上	面色潮紅, 煩躁, 口渴, 多喜冷飲, 便秘, 舌紅, 黃苔, 或白黃相兼苔
陰	陰盛則夢涉大水, 恐懼, 下盛則夢墮	陰寒, 衰弱, 抑制, 憂鬱, 色澤晦暗, 不足, 向下	面色蒼白或青晦, 口不渴, 憂鬱, 小便清長, 舌淡紅, 白苔

표 3. 臟腑機能失調에 따른 夢象

類型	전형적인 夢象	兼症
肝火擾心	睡後亂夢紛紜, 夢見多爲野外草木, 或大火燔灼	神煩不安, 頭痛目赤, 或胸脇脹痛
心膽氣虛	閉目入睡則有夢擾, 夢見多爲驚險事物, 時易驚醒	心悸不安, 遇事善驚易恐
心肺氣虛	睡後夢擾, 夢見多爲悲慘傷心事情	面色晄白, 氣短咳喘, 心悸不安
心脾血虛	睡後夢擾, 夢見多爲往事遺迹	心悸怔忡, 遇事善忘, 神疲乏力, 面色少華
腎不濟心	睡後夢擾, 夢見多爲水中事物	心悸易煩, 頭暈目眩, 兩耳鳴響, 或遺精

34) 柴文學·蔡濱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42.
 35) 劉曉驍·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3.
 36)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東양의학연구원 출판부, p. 343.
 37) 柴文學·蔡濱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42-43.
 38) 劉曉驍·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3.
 39) 柴文學·蔡濱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43.
 40) 張介賓, 類經, 中國中醫藥出版社, p. 277.

41) 柴文學·蔡濱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45-47.
 42) 劉曉驍·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p. 266-268
 43) 楊殿興 等, 夢境新探,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p. 57, 63-64, 77.

표 4. 張元素의 五臟病 發夢證治

五臟	辨證	病症	夢象	精神 情志	治療	
					選用藥物	選用方劑
肝	虛(不及)	頭痛,耳聾,頰赤,胸脇脹滿,脈虛而微	花草茸茸	如人將捕之,怒言	陳皮,生薑,熟地(補母)	錢氏地黃丸
	實(太過)	眩惑,內癱吐血,筋驚,兩脇下隱痛,脈實而弦	山林茂盛	喜怒,令人忘忽眩暈	白芍藥,甘草(瀉子)	錢氏瀉青丸
心	虛(不及)	咳唾,懊懣,胸腹及腰背引痛,脈來衰去也衰		恐悸多驚,憂思不樂,令人躁煩,精神不守,魂魄妄行	炒鹽,生薑	錢氏安神丸
	實(太過)	身熱而骨痛,口疳,舌焦引水,便不利,脈來盛去也盛	火發,喜笑,烟火,恐畏	笑不休,懊懣,狂言,言語妄言	甘草	輕導赤散,瀉心湯
脾	虛(不及)	中滿,胸中短氣,多澀,注痢不已,手足緩弱	飲食不足,大澤丘陵		甘草,大棗,炒鹽(補母)	錢氏益黃散
	實(太過)	胃脘痛,腹脹,舌強直,不嗜食,嘔逆,四肢沈痛	築垣,蓋房,歌樂	煩心,詭狂言,登高而歌,棄衣而走	枳殼,桑白皮(瀉子)	瀉黃散
肺	虛(不及)	寒熱喘息,肩背痛,惡右脇脹,喘咳,利下少氣力,上氣見血		躁擾,噴怒	五味子,甘草(補母)	阿膠散
	實(太過)	胸滿背痛,上氣喘悶,身熱,肩息,令人氣逆,脈來毛而中央堅	刀兵,恐懼	多驚,狂言,瞑目	桑白皮,澤瀉(瀉子)	錢氏瀉白散
腎	虛(不及)	小腹滿,兩耳若聾,坐而喘咳,唾白出,喉鳴,脈去如解索	舟溺人,伏水中	善恐,心懸,心惕之,如人將捕之	熟地,黃柏,澤瀉,五味子(補母)	補腎地黃丸
	實(太過)	令人脊痛,臍下痛,腰重痛,水腫少氣,不欲言,脈來如彈石	臨深,投水中	煩悶,煩心	知母,黃柏,澤瀉	

표 5. 五臟虛實에 따른 夢象

五臟	屬性	전형적인 夢象		兼症
		虛(不及)	實(太過)	
肝	肝藏魂,主謀慮	肝氣虛則夢見菌香生草,得其時則夢伏樹下,不敢起	肝氣盛則夢怒	手足蠕動,失眠,易驚,腰酸軟,面色無華,爪甲不榮
心	心藏神,主神明	心氣虛則夢救火陽物,得其時則夢燻灼	心氣盛則夢善笑恐畏	心悸怔忡,胸悶氣短,煩亂善驚,多疑,面色無華
脾	脾藏意,主思	脾氣虛則夢飲食不足,得其時則夢築垣蓋屋	脾氣盛則夢歌,身體重不舉	食少納呆,食後尤甚,便溏肢倦,懶言,面色萎黃
肺	肺藏魄,主憂	肺氣虛則使人夢見白物,見人斬血藉藉,得其時則夢見兵戰	肺氣盛則夢恐懼,哭泣,飛揚	短氣,汗出,聲音低怯,動則益甚,神疲體倦,面色淡白或晄白
腎	腎藏志,主技巧	腎氣虛則使人夢見舟船溺人,得其時則夢伏水中,若有畏恐	腎氣盛則夢腰脊兩解不屬	腰膝酸軟,體倦乏力,不耐勞作,夜尿頻多,男子精滑早泄,女子帶下清稀,或胎動易滑

또한 氣鬱, 氣滯도 꿈을 꾸게 한다. 정서가 오래도록 펼쳐지지 못하면 肝氣가鬱結되고 肝魂이 불안해져서 성내는 꿈이나 滯하는 꿈 등을 꾸게 된다. 예를 들어 『醫學衷中參書錄』에는 꿈에서 성내는 것에 대한 醫案 一例가 있다. “한 부인이 일년에 근 삼십일을 피가 섞인 가래 기침을 하는데 가장 심한 시점에는 다

시 입으로 피를 토하고 항상 가슴 속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 脈은 數하지만 實하지는 않다. 陰氣를 자양하고 기침을 멎게 하고 火를 내리는 약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며칠 후, (환자가) 血氣가 위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배가 다시 가려우면서 기침이 나고 다시 토혈을 하였는데, 환자 자신의 말로는 꿈속에서 화가 나고, 화가 끝까지 치밀면 엉엉 울기도 하는데, 깨고 나서는 반드시 피를 토한다고 하였다. 肝氣가 막힌 것으로 보고 舒肝·瀉肝하는 약물로 바꾸어 사용하였더니 여러劑만에 病情이 약간 경감되었다.” 이로써 肝氣鬱結, 氣機阻滯도 사람의 의식활동에 영향을 주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44)45).

血은 『素問·八正神明論』에 “血氣는 사람의 神이니 삼가 거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靈樞·平人絕穀』에 “血脈이 和利하면 精神이 居하게 된다.”라고 하였듯이 血은 정신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고, 心神과 肝魂 등의 소장재이다. 따라서 血虛는 꿈에 대한 영향으로 과급될 수 있다. 『醫宗必讀·恐』에는 “한 선비가 오랜 시험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피를 사발로 쏟고 뼈쩍 말라서 뼈만 앙상하니 남아 있었는데, 꿈에 남과 다투고 두려움을 느끼고, 피로하면 (이러한 현상이) 바로 나타났다. 補心安神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血虛 뿐만 아니라 血瘀도 꿈의 상견 원인이다. 清代 이후로 꿈의 형성 원인 중 瘀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王清任이 瘀血로 인해 꿈이 발생한다는 학설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瘀血이 阻滯되는 부위에 있어, 王清任은 뇌의 기능과 氣血이 腦氣를 凝滯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瘀血이 뇌에 阻滯된다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꿈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방제로 볼 때 瘀血은 血府에 있다. 그는 血府逐瘀湯의 주치증을 설명하면서 “밤에 잠자면서 꿈을 많이 꾸는 것은 瘀血 때문이다. 이처럼 한 낭을 주면 모조리 낮게 되며 이 외에 좋은 처방은 없다.”라고 하였다. 喻昌과 唐容川도 역시 瘀血이 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瘀血이 어떻게 꿈을 꾸게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王清任과 달랐다. 喻昌은 瘀血이 꿈을 일으키는 것이 心과 有關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醫門法律·虛勞門』에서 “여자의 勞瘵는 열 명 가운데 두세 명 끝로 血海인 衝脈에 瘀血이 쌓인 채 이동하지 못해 血이 말라 月經이 그치고 穢水이 달고 潮熱이 나며 밤에 꿈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니 급히 그 쌓인 瘀血을 소탕시켜야 하고 人蔘을 가해서 行하게 하면 한 나절이면 효과를 본다.”라고 하였다(46). 唐容川은 瘀血이 꿈을 일으키는 것은 瘀血이 濕熱의 蒸煽을 거쳐 癆蟲으로 변화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47)48).

③ 痰飲·寄生蟲

痰飲은 水濕과 津液 대사의 장애로 인한 병리적인 산물이며, 발병의 요소이다. 좁은 의미의 痰飲은 기침 시에 나오는 가래, 구토 시에 나오는 멀건 액체, 복구멍이나 가슴 등의 곳에 마치 뭐가 있어서 막힌 듯한 느낌을 주는 등의 것을 가리키고, 넓은 의

44)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 48.
 45) 劉龍驤·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p. 268-269.
 46) 喻昌, 醫門法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232.
 47)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48-52.
 48) 劉龍驤·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69-270.

미의 痰飲은 수많은 怪病들의 근원을 두루 가리킨다.

꿈은 변화가 많고 기이한 것이 많으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元대의 王隱君은 “痰이란 물건은 氣를 따라 오르내리며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혹 奇怪鬼魅한 狀의 꿈을 꾸다.”라고 하였다. 기생충도 꿈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短蟲多則夢聚衆, 長蟲多則夢相擊毀傷”라고 하여 기생충이 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短蟲은 蟻蟲이고, 長蟲은 蛔蟲이다. 또, 周學海는 『讀醫隨筆』에서 “대저 蟲證과 痰證은 서로 유사하다. 痰은 怪證이 많고 蟲 역시 怪證이 많다. … 괴이한 꿈을 많이 꾸는 등 불가사의하다.”라고 하여 痰과 蟲이 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⁴⁹⁾⁵⁰⁾.

(3) 정신적 또는 정서적 요인의 영향

사람에게는 怒·喜·思·憂·悲·恐·驚의 七情이 있고, 七情은 陰陽의 평형, 氣血의 유동, 臟腑의 기능, 經絡의 소통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七情의 변화에 따른 氣機의 변화는 『素問·舉痛論』에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⁵¹⁾.

七情 또한 꿈을 유발할 수 있다. 『周禮·春官』에서 말한 6가지 꿈 가운데 正夢과 寤夢을 제외한 噩夢·思夢·喜夢·懼夢 등이 모두 七情과 유관하다. 七情도 정신의 활동이므로 五神과 마찬가지로 五臟으로 귀속된다. 臟腑陰陽의 失調와 氣機의 逆亂은 氣의 변화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七情의 변화와 이상도 반드시 그 소속된 本臟의 陰陽失調, 氣機逆亂, 五神離位를 야기할 수 있다. 陳言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기뻐하면 心을 상하는데 그 氣는 흩어진다. 성내면 肝을 상하는데 그 氣는 치받는다. 우울해하면 肺를 상하는데 그 氣는 모인다. 생각하면 脾를 상하는데 그 氣는 맏힌다. 슬퍼하면 心包를 상하는데, 그 氣는 급해진다. 두려워하면 腎을 상하는데 그 氣는怯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張湛은 꿈을 감정이 변화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여겼다. 陳士元은 감정이 넘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감정이 넘쳐 흐른다 라고 하는가? 기쁨이 지나치면 꽃이 피는 꿈을 꾸고, 노함이 지나치면 꽃이 지는 꿈을 꾸며, 두려움이 지나치면 숨는 꿈을 꾸고, 걱정함이 지나치면 성을 내는 꿈을 꾸며, 슬픔이 지나치면 도와주는 꿈을 꾸고, 화를 냄이 지나치면 욕하는 꿈을 꾸며, 놀람이 지나치면 광포한 꿈을 꾸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감정이 넘치는 꿈으로, 그 내용 또한 추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여 七情과 꿈의 관계를 제시하였다⁵²⁾.

2. 夢診이 가능한 이유

夢診은 다른 診斷法과 매 한가지로 외부를 관찰해서 내부를

알아내는, ‘司外揣內’의 방법을 통해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동양에서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인식방법을 사용해 왔다. 『丹溪心法·能合色脈可以萬全』에서는 “그 내부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외부에서 관찰해야 한다. … 대개 내부에 있는 것은 반드시 외부로 형상화된다.”라고 하였다⁵³⁾.

한의학에서 夢診이 가능한 것은 꿈을 질병과 관련된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夢象과 臟象이 내재적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내재적 연관성은 인체와 자연환경, 인체의 각 장기, 조직과 기관, 사람의 형체와 기능이 하나의 통일된 정체이며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한의학의 정체관에서 비롯된다. 인체질병의 병리변화는 대부분이 내부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총칭하여 ‘臟象’이라고 하는데, 夢象도 臟象의 한 표현이므로 외부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체 내 장부의 감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아울러 夢象을 통하여 반영되어 나올 수 있으니 이른바 “봄에 꾸는 꿈들은 發生과 관련되고, 여름에 꾸는 꿈들은 高明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꿈이 수면 중의 心神활동의 표현으로 夢象의 각종 재료의 근원이 신체내로부터 받은 자극이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각종 邪氣의 침입과 情緒의 변화 및 신체 내부의 생리, 병리 변화가 모두 꿈을 일으킬 수 있고 아울러 꿈의 상황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 따라서 夢象은 臟象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성분일 뿐만 아니라, 臟象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므로 꿈을 분석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病變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臟腑의 변화와 서로 비교해 볼 때 꿈도 일종의 외재적인 표현이다. 『靈樞·淫邪發夢』에 “黃帝曰 願聞淫邪泝衍, 奈何? 岐伯曰 正邪從外襲內, 而未有定舍, 反淫于藏, 不得定處, 與營衛俱行, 而與魂魄飛揚, 使人臥不得安而喜夢. 氣淫于府, 則有餘于外, 不足于內, 氣淫于藏, 則有餘于內, 不足于外. 黃帝曰 有餘不足有形乎? 岐伯曰 陰氣盛, 則夢涉大水而恐懼. 陽氣盛, 則夢大火而燔燭.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형상은 앞서 ‘반드시 외부로 형상화된다.’라고 말한 것에서의 형상과 기본적으로 같은 뜻으로 모두 형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리바 “형상이 있습니까?”라고 한 것은 외부적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적 표현을 통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은 것이다. 이에 대해 岐伯은 명확한 회답을 하여, 단지 내부적 臟腑의 변화에는 외부적 징조가 있어 관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夢象이 반영하는 의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논술했으므로 夢診의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결론

夢診은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람의 심리상태와 꿈을 꾸는 연유에 대해 분석하여 인체내부의 病變을 인식하는 일종의 진단 방법이다. 夢診의 대상이 되는 꿈을 특별히 ‘病夢’이라고 하

49) 柴文舉·蔡濟新, 中醫釋夢辨治, 學苑出版社, pp. 52-54.
 50) 劉鮑驊·高榮林, 中醫睡眠醫學, 人民衛生出版社, p. 270.
 51) 怒則氣逆, 甚則嘔血及瀉泄, 故氣上矣.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悲則心係急, 肺布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 是則腠理開, 榮衛通汗大泄, 故氣泄.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52)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東文選, p. 334.

53) 朱震亨,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p. 196.

는데, 病夢이라는 명칭은 後漢末期 王符가 만들어냈다.

한의학에서는 楊上善의 이론을 근거로 꿈을 통한 진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病夢', 진단 행위 자체를 '夢診'이라 한다. 夢診의 원리는 생리·병리·진단·변증·치료 등 각 방면에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한의학 고유의 整體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꿈속에 나타나는 각종 상황을 특별히 '夢境'이라 하며, 이것이 臟象의 일부분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때는 '夢象'이라 한다.

꿈을 꾸는 데 있어서의 선결조건은 당연히 睡眠이다. 睡眠이 없으면 꿈도 없다.

夢境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을 五神(魂·神·意·魄·志)의 변화라고 하였고, 그 유발요인은 신체 내외 환경의 자극, 정신과 감정의 영향 등이다. 신체 내외 환경의 자극은 다시 신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내부로부터의 자극으로 나뉘는데,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六淫(風·寒·暑·濕·燥·火)의 변화, 계절의 변화, 음식관계 및 촉각, 청각, 시각, 미각, 후각적 자극 등이고, 내부로부터의 자극은 臟腑생리기능의 영향, 臟腑·陰陽·氣血의 失調, 痰飲과 瘀血, 寄生蟲 등이다.

참고문헌

1. Erich Fromm, 『The Forgotte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Understanding of Dreams, Fairy Tales Myths. 한상범 譯. 꿈의 精神分析. 서울, 정음사, 1977.
2. 劉文英, 河永三·金昌慶 譯. 꿈의 철학. 서울, 東文選, 1993.
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4. 柴文學·蔡濱新. 中醫釋夢辨治. 中國, 學苑出版社, 1996.
5. 劉艷驕·高榮林. 中醫睡眠醫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6.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7. 楊殿興 等. 夢境新探.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6.
8. 李旻. 精校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9. 金景先. 韓醫學의 精神과 佛教 唯識學 中心法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0.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1. 喻昌. 醫門法律.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2. 朱震亨. 丹溪醫集.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5.